

아베, 또 악재... 뇌물 혐의 자민당 의원 체포

日 검찰 "중기업서 300만엔 받아" 3선 중진의원 자민당 탈당 의사 벗꽃모임 논란 이어 정치적 타격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25일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카지노를 포함하는 일본 복합리조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국 기업 '500.COM'으로부터 수백만엔을 받아 정권 혐의로 아키토모 쓰카사(秋元大) 48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체포했다.

일본 현직 의원이 체포된 것은 2010년 1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伸裕) 중의원 의원 이후로는 처음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 2개월간 내각부와 국토교통성 부대신(차관)으로 IR 사업과 관광정책에 관여했던 아키토모 의원은 일본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중국 광둥(廣東) 성 선전에 본사를 두고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500.COM은 2017년 7월 도쿄에 일본법인인 설립하고 복합리조트 유치에 희망하는 훗카이도 루스쓰무라(留都村) 지역에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아키토모 의원은 2017년 8월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이 회사 주최로 열린 IR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하고 그 해 12월에는 이 회사 중국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토통신은 아키토모 의원이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 측에서 받은 금품 규모를 현금 300만엔과 여비 등 70만엔 상당의 부당 이익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검찰은 중국 회사가 일본법인 임원들을 통해 현금 수백만엔을 불법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수사하던 중에 아키토모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은 중국 기업을 둘러싼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건이 정치권

비리 사건으로 발전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아키토모 의원은 체포 직전 트위터에 "부정에는 일질 관여하지 않았다. 그 점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아키토모 의원은 체포 직전에 자민당 지도부에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참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시작해 중의원 3선의 관록을 쌓은 아키토모 의원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계하면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세금을 쓰는 범람이 행사인 '벗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한 아베 총리에게 새로운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성탄전야 미사 집전하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교황은 임기 중 7번째로 집전한 이날 미사에서 "우리가 이웃에 선행을 베풀기 전에 이웃이 먼저 베풀기를, 우리가 교회에 사랑을 하기 전에 교회가 완벽해지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그들이 우리를 먼저 존중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산타의 현재 위치는 인도의 남쪽 상공" 美 우주비행사 위치 추적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미국 우주비행사 앤드루 모건 대령에게 올해 크리스마스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1955년부터 계속돼 온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산타 위치추적 임무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모건 대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시간) NORAD 트위터에 올라온 1분 30초 분량의 영상에 등장했다. 무중력 상태의 허공에 떠 있다 아래로 내려온 모건 대령은 "산타가 현재 인도 상공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시각적 확인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ISS는 지구에서 250마일(402km) 떨어져 있고 시간당 1만 7천마일(2만7천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초당 5마일(8km)로 가는 것"이라며 "이곳의 다른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산타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NORAD의 연례 산타추적 행사에 우주비행사가 동참한 것은 처음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NORAD는 성명을 통해 "ISS는 산타의 위치를 포착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라면서 "모건 대령과 ISS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NORAD는 산타가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으로 이날 오전 9시 30분 북극을 떠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루가스 피하는 산타 복장 홍콩 시민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 홍콩에서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를 쏘아대자 산타클로스 모자와 손목 뿔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시민들이 피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北 성탄선물 미사일 아닌 예쁜 꽃병일 수도"

긴장 부각 피하려는 의도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성탄선물'에 대한 질문에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리조트에서 성탄절 맞이 미군 장병과의 화상 통화를 한 뒤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경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

면서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며 미사일 시험발사가 아니라 예쁜 꽃병 같은 선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놀라움이 생기면 나는 처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지켜보자'는 답변과 '좋은 선물' 가능성 거론으로 긴장 부각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연말을 앞두고 대미압박을 높여

가며 성탄 선물을 공언한 상태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이 같은 위성탐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을 크게 자극할 만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한 발언이 유효하다'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 등을 통해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나설 경우 준비돼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경고해왔다. /연합뉴스

블룸버그, 전화 선거운동 죄수들 동원 논란

값싼 노동력 활용 비난 "해당 업체와 계약 취소"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미국 내 죄수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블룸버그 전 시장은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인터넷 탐사보도매체인 '디 인터셉트'는 24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한 블룸버그 전 시장의 선거캠프가 제3자를 통해 뉴저지 소재 통신회사인 '프롬프'와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롬프이 오콜라 호마주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2곳은 주(州)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중 1곳이 블룸버그 측 전화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소자들이 블룸버그 캠프를 대신

해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것이다. 오콜라호마 교정구 홈페이지를 보면 주 교도소에서 일하는 재소자들은 월 최대 20달러(약 2만3천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 추산 540억 달러(약 63조원)의 자산을 자랑하는 억만장자가 교도소의 저임금 노동력을 동원한 셈이다. 보도가 나오자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취재 기자의 전화를 받고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성명을 내고 "우리 거래처의 하도급업체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재소자들을 고용한 회사와의 관계를 곧바로 단절했다"며 "우리는 이런 관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인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달 말 뒤늦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막대한 개인 재산을 활용해 온라인과 TV에서 대대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훗김에 거리 오성홍기 불태운 중국인 징역 1년

한 중국인이 훗김에 거리에 내걸린 자국 국기(오성홍기)를 불태웠다가 국기 모독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충칭시 법원은 지난 23일 국기모독죄로 기소된 류 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형은 곧바로 확정됐다. 류씨는 지난 10월 9일 충칭(重慶)시의 거리에 걸린 오성홍기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훗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 현행 국기모독죄는 국기를 훼손하는 등 모독한 이를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한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공공장소에서 국가를 왜곡해 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새로 시행하는 등 국가의 상징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평생 어부바 신협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